

철강

중국 철강 산업 5개년 계획 초안 공개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중국 공산부의 5개년 계획: 전기로 비중 상승 + 조강 생산량 감축?

중국 공산부는 14차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철강 산업의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제안(초안)을 공개. 전반적으로 '친환경', '효율화'의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 우선, 전기로 비중을 20%로 증가시키는 등 철스크랩 사용을 장려<표1>. 또한 설비 효율 개선, 탄소배출저감 장치 설치를 통해 철강 산업 내 탄소 배출량을 20% 절감. 산업 집중도 역시 상위 기업 5개 기준 40%까지 상승시킬 계획.

이에 더해 공산부는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2021년 조강 생산량이 감소해야 한다고 발언. 초안에도 철강 생산능력 스왑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타이트해질 철강 수급. 철광석 가격도 안정화 기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기로 비중 상승이 현실화될 개연성은 풍부. ①단기적으로는 급등한 철광석 가격이 부담스럽고, ②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며, ③호주-중국 간 외교 문제를 감안하면, 원자재 안보 측면에서도 철광석 의존도를 낮춰야하기 때문. 중국 전기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중기적으로 철스크랩 가격 상승, 철광석 가격 안정화가 예상

조강 생산량 감축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2021년 2천만톤 이상의 생산능력 순증이 계획되어있기 때문. 경기 부양 필요성 감안 시 생산 활동을 억누르기도 어려운 상황. 지난 12월 중국 정부 조사기관인 MPI는 2021년 중국 조강 생산량이 +1.4% YoY(+1,5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

다만 순증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도의 지엽적 규제는 가능한 상황. 향후 중국 조강 생산능력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급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 또한 생산량 감축 발언 자체만으로 철광석 투기 수요가 완화되는 효과 발생 가능. 결론적으로, 이번 공산부의 제안은 철강 수급 개선과 원재료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

철강주, 친환경 정책의 역설적 수혜

이번에 제시된 초안의 확정안은 3월 전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예정. 중국 정부가 2060년 탄소 중립(Net-Zero)을 선언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었다는 판단. 철강 수요 호조가 예상되는 2021년에는 철강재 전반적인 수급 개선 및 가격 상승 전망.

표1 중국 공산부: 2020~2025년 철강 산업의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제안 (초안)

구분	내용
1	중국의 철강 자급률 45% 달성. 철스크랩 생산을 연간 3억톤으로 증가시키고, 해외 철광석 광산을 개발함으로써 중국 지배 광산이 수입 물량의 20%를 넘도록 할 것
2	전기로 생산량을 총 국내 조강 생산량의 20%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 전로에서의 철스크랩 투입을 포함하여, 철스크랩으로부터의 모든 생산량이 전체 조강 생산량의 30%를 넘도록 할 것
3	개선된 코크스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상승시킬 것. 개선된 소결 설비와 고로의 가동률을 각각 80% 이상으로 상승시킬 것
4	철강 생산 시설 중 80%에 탄소배출 초저감 장치를 설치할 것. 일부 핵심 지역은 100%를 설치할 것. 철강 산업 탄소 배출을 20% 감축시킬 것
5	철강 산업의 R&D 투자 집중도를 1.5%까지 상승시킬 것
6	대규모 철강사들을 합병시킴으로써 산업 집중도를 상승시킬 것. 상위 5개 기업 집중도 40%, 상위 10개 기업 집중도 60%를 달성할 것
7	연평균 산업 노동생산성을 인당 1,200톤까지 상승시킬 것. 신규 설비는 인당 2,000톤까지 상승시킬 것
8	철강 생산능력 스왑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 계획 외의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시킬 것
9	친환경, 탄소배출저감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로 개발을 활발히 할 것

자료: 중국 공산부, Argus Med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